

노주영 동문 (

평신도 돕는 사역자: 크리스천 코치

소명: '온전한 돌봄'을 받고, '온전한 돌봄'을 하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8년째 거주하며, 남편과 두 아들, 막내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새가족부와 부부셀 리더로 섬기며, 하나님 안에 다양한 만남들과 배움을 누리고 성장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2022년 가을, 돕는 사역자의 소명을 받고, WMU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여 2024년 봄 학기에 석사과정 (MAGL-Coaching)을 졸업하고, 박사과정 (PhD-Coaching)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타문화권 경험과 인생여정의 여러 레슨들을 통해 선교적 삶의 실재를 고민하고 배우며, 무엇보다 제 스스로의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모든 것의 우선됨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WMU에서 신학과 영성을 바탕으로 크리스천 코칭을 익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시작한 학업은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호흡으로 이어져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돌봄'을 받고, '온전한 돌봄'을 하는 돕는 크리스천 코치를 직업적 소명으로 여기고, 평생 학습자로 삶과 전문성의 통합을 위해 훈련받고 쓰임받기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온전한 돌봄'이란 예수 그리스도(빌 2:5-8)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그 돌봄을 위해 삶으로 헌신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 여정을 잘 마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여전히 많은 것을 손에 쥐었고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한 현실이나, 온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Greetings. I have been living in Jakarta, Indonesia for 18 years with my husband, two sons, and youngest daughter. I am a deacon in a Korean American church where I serve with my husband as a new family ministry and couple cell leader, and I am enjoying various encounters, learning, and growing in God. In the fall of 2022, I received a call to be a helping minister and began her studies at WMU, graduating from the Master's program (MAGL-Coaching) in the spring of 2024 and entering the doctoral program (PhD-Coaching).

Through cross-cultural experiences and various lessons in my life journey, I have been thinking and learning about the reality of missional living and realized that my own personal transformation and maturity must take precedence over everything else. I believe it was by God's grace and guidance that I was able to learn Christian coaching based on theology and spirituality at WMU. What started as a hectic schedule has led to a more abundant life because it has allowed me to breathe with God instead of worrying. I confess that I was able to come to an end with God's help.

I desire to be 'fully cared for', to see being a 'fully cared for', helping Christian coach as a professional calling, and to be trained and used as a lifelong learner to integrate life and professionalism. For me, "total care" is Jesus Christ (Philippians 2:5-8), a loving God. I see it as my mission to follow the Holy Spirit to dedicate my life to that care, and I wish I well on my journey.

As a stranger, I still have much in my hands and lack too much, but I will continue to live in hope and dependence on the God who is perfect, and I will continue to imitate Jesus.